

# “인태 안정 위해 亞동맹국, 자국 방어 더 노력해야”

〈인도·태평양〉

## 미 국방, 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설명 한국에 대북방어 역할·투자 확대 요구 메시지인 듯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은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의 취지를 설명하는 글에서 “결정적으로, 인도·태 지역의 안정 보장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어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를 한국에 대입하면 결국 NSS의 아

시아 관련 기술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대만 유사시 대비 쪽에 미국이 역량을 ‘선택과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 급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그러면서 NSS의 아시아 파트에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몰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은 또한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 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사력을 재건하고 억지력을 회복하는 것을 자축하는 것처럼 우리는 동맹국들도 같은 일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아오모리현 강진으로 화재 발생한 주택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지난 8일 밤 발생한 규모 7.5 강진에 따른 부상자가 30명으로 늘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9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아오모리현 강진 피해와 관련해 부상자 30명, 주택 화재 1건 등의 보고를 받았으면서 “계속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관리실패 다룰것”

### 로펌 SJKP, 뉴욕서 기자회견…‘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할 것이라고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

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김 경영대표는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日, 강제동원·위안부 배상 즉시 이행해야”

### 한일 법률가들 도쿄서 공동선언 발표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이 9일 일본 정부와 기업을 향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양국 법률가 약 240명은 이날 도쿄 일 본변호사연합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내놓은 공동선언에서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다. 이어 양국 재판부가 과거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1월과 2023년 11월에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인도적 범죄 피해에 대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국제법의 강행 규범을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대선소방설비산업  
(주)대선이엔지  
(자)대선산업개발

(주)일등소방  
(주)유덕전기소방공사  
(주)엔에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8  
Tel : 062-381-7119